

나주시 원칙없는 인사행정 연이어 잡음

고스톱 적발 시장 측근 사무관 승진 시키려다 발목

지난해 인사도 직렬무시... 감사원, 임시장 경고 조치

나주시가 시장측근을 무리하게 사무관으로 승진시키려다 인사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히는 등 연이어 '원칙없는 인사'를 단행해 잡음이 일고 있다. 나주시는 2012년 정기인사를 앞두고 서기관 1명과 사무관 4명의 승진 요인이 발생, 지난 10일 인사위원회 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B(6급)씨가 5급승진 대상에 포함 된 것을 놓고 인사위원들 사이에서 이의가 제기돼 결국 전보인사만 승인

한 채 승진의결은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이 됐던 B씨의 경우 지난 해 7월 시 감사실 조사계장으로 근무 당시 심야시간인 새벽 2시까지 식당에서 고스톱을 치다 경찰에 적발돼 A면으로 전보조치된 전력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공직내부에서는 B씨가 승진대상에 포함된 것 자체가 현 임성훈 시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그동안의 인사행정에서 경

불신이 팽배한 상태다. 공무원 K(8급)씨는 "민선 5기에 들어서 인사행정 자체가 기준과 원칙이 없어져 버렸다"며 "임 시장이 공무원들을 쫓아내기 위해 독선적인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나주시는 지난해 단행한 인사발령을 놓고도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부적절한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직렬을 무시한 인사발령을 비롯해 근무평점 평결위원회의 형식적 개최, 승진의결 없는 직무대리 발령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최근 행안부가 임 시장에 대해서는 경

고조치를 하고 전 행정복지 국장과 해당 2명의 사무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인사위원회는 적격심사와 의결이 동시에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논란이 격렬해 10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적격 심의만 거치고 13일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무관 승진 인사 배수에 B씨가 포함된 것을 놓고 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등 근무평정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끓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최승필기자 srchoi@



강진군 칠랑면 땅심화훼영농조합 법인 최명식 대표(왼쪽)가 지열난방과 나트륨등(燈)이 시설된 하우스에서 장미를 수확하고 있다.

화려한 강진 절화장미, 울 154만송이 생산 매출 34억 기대

전남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강진 장미농가들이 최고품질의 절화(折花) 장미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51 농가에서 32호로 감소했던 강진군 장미 재배 농가가 41 농가로 늘어나면서 고품질 장미생산까지 이뤄내 농가 소득창출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

고 있다. 칠랑면 절화장미 농가들의 법인체인 '땅심 화훼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최명식)은 하우스 전경에 고압 나트륨등(燈)을 설치해 광합성 효율 상승효과로 고품질의 장미를 생산하고 있다. 또 기름대신 땅속의 열을 파이프를 통해 끌어올려 순화시키는 '지열난방'을 활용해 시설재배의

가장 큰 부담요소인 난방비를 70%까지 절감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강진장미 재배농가는 올해 154만송이를 생산, 34억원의 매출액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인 재배면적 감소추세로 지난해처럼 높은 가격이 형성돼 당초 예상한 순수익 14억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나주 국제농업박람회 성공 예감

미·중 10개국 등 국내외 147개 기업 참가 신청

오는 10월 나주에서 열리는 '2012 국제농업박람회'에 국내외 다양한 농업관련 업체와 단체·기관들의 참가 신청이 잇따라 성공 개최 가능성을 밝혀주고 있다. 13일 박람회 주관기관인 전남농업기술원의 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외 10개국 47개 기업 등 국내외 147개 기업이 참가를 확정했다. 올해는 여수세계박람회와 F1자동차경주대회가 전남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어 농업박람회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우려했으나 외부 참가 문의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이탈리아·덴마크·호주·중국 등 10개국 47곳이 참가하기로 했으며 일본·폴란드·네덜란드·멕시코 등 20여개의 기업들이 참가 의사를 밝혔거나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도 국립종자원, 농수산대학, CJ제일제당 등 100여개의 기관·단체와 기업이 참가신청 의사를 알려왔다. 조직위는 20개국 250개 기관·단체·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6월 말 신청 마감 전까지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람회 개최 200여일을 앞두고 각종 기반 조성공사 공진률도 80%를

보이며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전시관별 주제에 어울리도록 전시연출 전문가 그룹을 초청해 유기농업관을 신설하는 등 농업기술원은 지난 10년간 개최한 국내 농업박람회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수농산물 홍보와 판매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박람회 조직위 사무국장은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역별 순회방문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국내 기업 참여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2국제농업박람회는 '녹색 미래를 여는 생명의 세계'를 주제로 오는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나주시 산포면 소재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다. /정필수기자 bungy@

화순 광덕로 일대 상가 간판 새단장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일대 상가 간판이 LED(발광 다이오드)로 교체됐다. 화순군은 지난해 7월부터 상가주요 건물주 등으로 화순읍 광덕로 간판 정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디자인을 결정하는 등 간판 교체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12월 사업을 완료했다. 군은 간판교체 사업에 한국전력의 전력산업 기반기금과 지자체 예산 각 2억5400만원씩 50대 50 매칭으로 모두 5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32개 상가건물의 형광등 조명 간판 500여개를 철거한 후 LED 간판 192개로 교체했다. 또 타이머 스위치를 부착해 일정한 간 이후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도록 해 경제성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나주경찰 영산파출소 사랑나눔 봉사 활동 활발

나주경찰서 영산파출소(소장 전 풍길)가 대민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영산파출소는 지난 9일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조치 일환으로 관내 4개교의 졸업식장에서 감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캠페인은 관내 영산동과 영강동 '어머니 자율방범대' 회원과 3개 주민자치센터 위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에 앞서 영산파출소는 지난 7일 영산 어머니 자율방범대원들과 함께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회



관을 찾아 관내 노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배식과 설거지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 전풍길 영산파출소장은 "직원들이 직접 실천하는 크고 작은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관내 자율방범대와 함께 봉사활동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필기자 srchoi@

전 북

순창 전통장류 저염화 주력

日 선진기술 도입 세미나

순창군이 일본의 선진 저염화(低鹽) 생산기술을 순창 전통장류에 도입한다. 순창군 저염화 장류 프로젝트팀(팀장 정도연)은 일본의 선진 저염화 장류생산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10일 발효미생물관리센터에서 장류제조업체 관계자와 장류전문가, 일본 미생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아이치현 식품공업기술센터 기타모토 노리유키 박사과 나카쿠키 히데오 박사, 경상대 류충호 교수를 초청해 장류의 저염화에 관한 핵심기술 등을 발표함으로써 저염화 장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기타모토 노리유키 박사는 "한국군의 DNA 재조합 기술과 에틸알콜(주정) 미생물 첨가방법이 저염화 장류를 만들 수 있는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다"면서 "순창 전통장류에서도 이러한 기술을 도입한다면 저염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고 발표했다. 또 경상대 류충호 교수는 "저염된 장 생산의 핵심기술로는 효모(에틸알콜 생산) 첨가와 유산균의 활용을 통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염화 장류 프로젝트팀은 앞으로 일본의 선진기술을 도입해 현재의 염도를 단계적으로 3%씩 저감화 시킴으로써 전통장류의 고염(高鹽) 섭취 식품 불평형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농기계 빌려드립니다

순창군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콤바인 등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 시운전을 하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 2008년부터 군 자체예산으로 퇴비살포기 등 52종 305대를 구입해 농민들에게 임대해 주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혁신도시 잔여부지 활용 대책 고심

道, 정부에 컨벤션센터·야구장 건립 등 요청

전북도가 혁신도시 잔여부지 활용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당초 정부의 분산배치 원칙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남으로 일괄 이전되면서 LH 부지규모의 12만여㎡가 빈터로 남았다. 도는 LH 이전후에 따른 보상으로 이 잔여부지에 컨벤션센터나 야구장을 건립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낮고, 프로야구단이 없는 전북에 야구장 건립이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이다. 전북지역에는 농업진흥청 등 5개 농업 관련 기관들이 지난해 전북 혁신도시에 청사를 착공한 데 이어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

식품연구원, 한국 농수산대학 등 5개 기관도 올 상반기까지 차례로 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도는 혁신도시의 완성을 높이기 위해 LH 부지 활용에 대한 장·단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LH 대신 전북으로 이전하는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로 부지 매입을 권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가능 확률이 예상되는 국민연금공단이 1만5000~3만㎡를 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수도권의 농업 관련 공공기관이나 도내 공공기관의 이전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곳에 들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와 연계해 기업의 연구소 등 부설기관의 이전도 타진하기로 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뉴스 브리핑

道, 소값 안정위해 암소 1만2000마리 감축

전북도는 한우의 적정 사육두 수 유지를 통한 가격안정을 위해 암소 1만2000마리를 감축한다. 이는 전국 목표인 10만마리의 12%에 해당한다. 도는 35억원을 들여 2등급 이하의 수소를 낳은 암소 등 저 능력 암소를 연발가

지 출하하면 마리당 30만~50만원 지원키로 했다. 지원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오는 29일까지 지역 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감축대상 암소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익산시 6급이상 공무원 성과관리제 운영 강화

익산시는 올해 성과관리제인 'BSC'(Balanced Score Card·균형성과표) 운영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5급 이상 국·과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직무성과평가를 올해는 6급 공무원까지 확대해 직무성과 중심의 성과관리(BSC)에 의한 개인 업무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오는 2013년부터는 7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

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실시되는 평가체계는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전 부서에 대한 부서평가 결과와 함께 국·과장별 개인지표 3개씩과 6급 공무원 개인지표 2개씩을 각각 설정해 목표성과 달성도에 의한 개인평가 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군산시 풍당보리축제 아이디어 공모

군산시는 5월 열리는 '풍당보리축제'의 내실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축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아이디어 공모 접수 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공모 분야는 타 축제와 차별화되고 참

신한 프로그램 발굴과 이벤트, 홍보기법 등 축제 전반에 대한 내용이다. 시는 접수 마감 후 우수 아이디어는 심사를 통하여 개별 시상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김제시 행정 표준업무 매뉴얼 보완 정비

김제시는 행정의 연속성과 시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근 표준업무 매뉴얼(SOP)을 보완·정비했다. 지난 2010년 5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규격의 심사 및 인증을 받은 김제시 표준업무 매뉴얼은 지난해 3월 제작 배부돼 행정 전 분야에서 단

위업무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SOP 업그레이드는 ▲단체별 필수 행정절차 이행 ▲관련부처 협의내용 ▲쟁점 및 대책 등을 보완해 당초 작성된 매뉴얼에 업무 경험, 행정절차 필수 이행내력 등 발전적 내용을 추가 보완했다. /전북취재본부=홍순진기자 hnews@

임도 등 친환경 산림 만든다

서부산림청 180억 투입 산사태 예방 등 재해방지

서부 지방산림청(청장 윤정수)은 올해 1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도와 산사태 예방시설, 사방댐 등 친환경 산림토목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산림토목사업은 최근 들어 국지적 기온상승 호우가 빈발하는 등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와 주택파손, 농경지 매몰 등을 막기 위해 추진된다. 임도는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와 경영을 위한 산림기반 시설이며, 사방댐은 계곡 상류에

서 발생한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지는 것을 막아 하류지역의 민가와 농경지, 도로 등의 피해를 막는 재해방지용 시설물이다. 윤정수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올해 산립 토목사업은 경기진작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함께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대학교수, 환경단체 등 외부전문가포 구성된 타당성 평가단을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을 완료했다"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해에도 강하고 친환경적인 산림토목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